초등 5~6학년
독후활동지 (교사용)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사이공 하늘 아래

글 신현수 | 그림 최정민

스푼북

사이공 하늘 아래

- **글:** 신현수
- **그림:** 최정민
- **출판사:** 스푼북
- **정가:** 12,800원
- **분량:** 168쪽
- **대상:** 초등 고학년
- **키워드:**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책 소개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과 닮았어요. 두 나라 모두 남북으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더 상처가 깊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참전 국가이기에, 베트남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의료 봉사에 나서고 학교와 집을 세우는 등 베트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미군과 협력해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마을을 파괴하고 양민들을 죽게 만든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요. 이 책은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국군과 베트남 아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살펴보면서 당시 모두가 겪었을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동을 함께 느껴 보세요.

앞표지

뒤표지

1 책 앞표지의 제목과 그림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번호	앞표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
1	
2	
3	

2 책 뒤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장면일지 상상해 보세요. 또 뒤표지에 한 문장으로 된 카피를 만들어 넣어 보세요.

독서 전

• 《사이공 하늘 아래》의 차례입니다. 차례를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세요.

차례

작가의 말 … 4

아폴로 11호 … 15

무적의 한국군 태권 전사 … 33

한밤중에 온 손님 … 46

킴푸동 아저씨와 철푸와 여늬 … 60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결치는데 … 79

추수하는 날 … 87

지옥 같은 광경 … 98

아저씨도 거기 있었어요? … 114

파파야 나무 아래 … 126

죽지 않아, 괜찮아 … 137

사이공 하늘 아래 … 153

독서 중

• 다음은 《사이공 하늘 아래》의 일부입니다. 질문에 답해 보세요.

[22~23쪽]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미군도 보냈잖아."

히엔이 핀잔을 놓자 쩌우가 버럭 화를 내며 얼굴을 들이댔다.

"미국이 우리를 뭘 도와줘? 망치러 왔지. 우리 ((1))되는 걸 훼방 놓으러 온 거라고. 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미국 가서 살아, 여기서 살지 말고."

히엔도 지지 않고 쩌우의 멱살을 잡았다.

"너네 집 ((2))이지? 그래서 미국 싫어하는 거지? 그러다 너네 큰일 난다."

"뭐라고? 뭐가 큰일 나?"

"뭐긴, ((2))이 미군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냐?"

급기야 히엔과 쩌우는 서로 엉겨 붙어 운동장에 나뒹굴며 몸싸움을 벌였다. 바로 그때 촌장님이 지나다가 둘을 뜯어말리며 야단을 쳤다.

"그만하지 못해? 어찌 친구끼리 싸우는 게냐! 어른들은 전쟁을 해도 너희끼린 싸우지 말아야지!"

1 위에 빈 칸에 (1), (2)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순서에 맞게 골라 보세요.

① (1) 분단 (2) 공산당
② (1) 통일 (2) 미군
③ (1) 통일 (2) 베트콩
④ (1) 분단 (2) 베트남

2 히엔과 쩌우가 다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서 중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82쪽]

"한국군에 다른 마을 추수도 돕고 모내기도 돕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마을까지 거들어 줄 줄은 몰랐네. 근데 난 오지 말라고 하고 싶구먼."

뚜언은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조심스레 물었다.

"일손도 달리는데 한국군이 도와주면 좋지 않아요, 아버지?"

"일손 달린다고 적군 도움을 받아야 하니? 이러니저러니 해도 한국군은 우리 적이야. 해방 전사들을 잡아 죽이는 적군이라고."

뚜언은 그러면 어떡해야 되느냐고 아버지한테 묻고 싶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표정에 노여움이 엿보여 차마 묻지 못했다.

[95쪽]

뚜언은 아이들 얘기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다. 해방 전사가 된 큰형도 걱정되고, 김수동 병장도 생각났기 때문이다. 마을 어른들도, 큰형도, 어머니와 아버지도, 쩌우도 모두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번엔 란 선생님까지 저러니 혼란스럽기만 했다. 특히 며칠 전 미군이 해방 전사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봤지만, 한국군이 그러는 건 직접 보지 못했기에 뚜언은 믿기지 않기도 했다.

'한국군이 정말 해방 전사들을 잡으러 왔다면 주민 잔치는 왜 하고, 진료는 왜 해 주는 거지? 우리한테 왜 친절하게 구느냐고! 우리도 베트남 사람인데…….'

1 뚜언이 한국군을 바라보며, 우리 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여러분이 뚜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독서 중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60~161쪽]

뚜언은 꾸벅 인사한 후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통수에 뭔가 강한 눈길이 느껴지는 것이, 김병장이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숙제를 다 안 한 아이처럼 가슴이 불편하고 찝찝하기도 했다. 사진과 편지를 돌려주고 나면 후련할 것 같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 (　　). 그냥 가면 바보야.'

뚜언은 이렇게 마음먹고 뒤돌아섰다. 짐작했던 대로 김병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뚜언은 그에게로 가서 숨을 한 번 크게 내쉰 뒤 말했다.

"김쑤동 아저씨, 저를 살려 준 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큰집 마을을 그렇게 만든 건…… 진짜 진짜 나빠요."

그러고선 대답도 듣지 않고 뚜언은 뒤돌아 내달렸다. 전갈에 쏘인 곳이 아파 왔지만, 절뚝절뚝하면서도 그대로 달렸다. 어려운 숙제를 마친 것처럼 속은 시원한데, 이상하게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1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써 보세요.

2 밑줄 그은 부분을 읽고 생각해 보세요. 뚜언이 느끼는 '숙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뚜언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스스로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독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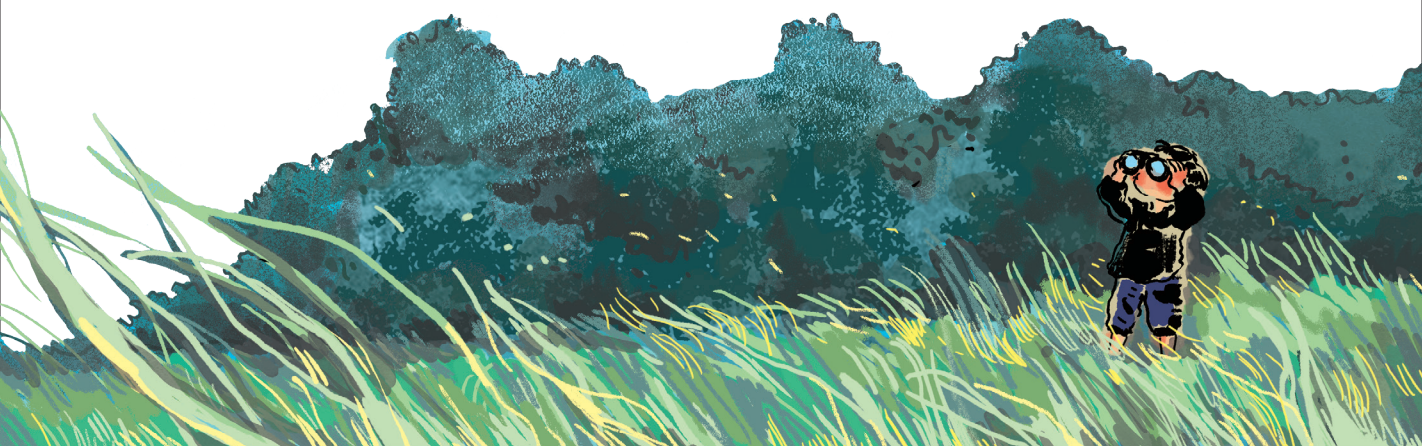
• 다음은 《사이공 하늘 아래》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그림	장면 설명하기

독서 후

• 한국으로 돌아간 김병장이 뚜언에게 편지를 보내 왔어요. 여러분이 뚜언이라면 김병장에게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은가요? 김병장의 편지에 답장을 써 보세요.

[163~164쪽]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올 때 내 동생들한테도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러 간다고 했고, 여기 도착해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러 왔다고 했지. 그런데 베트남을 떠나면서 생각하니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하고 가는 건지 착잡하기만 하구나.

더구나 너희가 한국군을 원망하고 증오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편지와 선물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